



보육동행

2013 봄호

어린이집과 부모를 지원하는
대구광역시보육정보센터의 계간 간행물입니다.



Contents

- 03 권두언
- 04 보육안내
2013년 보육사업 주요정책 변경사항 안내
- 06 표준보육과정 시리즈 I
표준보육과정 이해하기 : 총론
- 08 건강칼럼 시리즈 I
보육교직원 건강관리 : 직무스트레스 관리
- 10 장애이해 시리즈 I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 12 문화칼럼 시리즈 I
예술과 함께 자라고 싶어요.
- 14 생생Talk
너에겐 나의 진심이 필요했구나!
- 15 문화정보
봄 나들이 가요~~~~~

행복한 보육
보육동행
2013 봄호



우리아이 발달체크 (K-CDR II)는 대구보육정보센터에서 하세요^^

출생에서 만 6세까지 내 아이를 위한 우리아이 발달체크(K-CDR II)
: 아이를 보육하면서 “우리반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K-CDR II을 통해 우리아이발달을 스크리닝 할 수 있습니다.

※발달체크 방법

- 대구보육정보센터에서 참여신청 ▶ 어린이집 부모에게 참여홍보 ▶ 부모에게 참여동의서 받기
- ▶ 어린이집 부모님께 참여동의서 받기 ▶ K-CDR II “우리아이 발달체크” 참여하기



반갑습니다.

최미희 (대구광역시보육정보센터장)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인사말씀 올립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보육정보센터장을 맡게 된 영진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최미희입니다. 보육인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로 함께하는 희망보육, 행복도시 대구!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찬바람을 견디어 내고 살포시 새 잎을 내미는 연초록의 봄 새순을 보며 양증맞은 아이들의 수줍은 웃음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 어린이집에 들어선 낯선 발걸음이 설레어도 보이고, 두려워도 보이고, 조심스러워도 보입니다. 그 눈망울은 세상살이의 첫 나들이에 형언하기 힘든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게는 언제 저런 시간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기억조차 희미하지만 재미있고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무언가 두려움과 어려움이 컸던 기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의 품을 떠나 처음 맞이하는 어린이집 생활은 모든 것이 낯설고 힘겨운 시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맞는 연례행사쯤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한 명 한 명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추억들일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한 번뿐인 시간..

벤자민 프랭클린의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나에게도 가장 소중한 시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인생의 시간임을 생각하며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사랑스럽게 교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봄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동료 교사들, 학부모님들, 원장님 서로서로 힘을 주고 사랑을 주는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 다해 흙덩이를 뚫고 나와 솟아난 새 잎을 보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돌아보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최선을 다한 뿌듯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봄날들 되십시오.



2013년 보육사업 주요정책 변경사항 안내

1 보육료 지원확대



[무상보육] '13.3월 부터는 『만0~2세』, 『만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 지원

구분	'12년 단가
만0세 아동	394,000원
만1세 아동	347,000원
만2세 아동	286,000원
만3세 아동	197,000원
만4세 아동	177,000원
만5세 아동	200,000원
장애아동 (별도반 편성시)	394,000원

구분	'13년 단가	비고
만0세 아동	394,000원	
만1세 아동	347,000원	
만2세 아동	286,000원	
만3세 아동	220,000원	23,000원 ↑
만4세 아동	220,000원	43,000원 ↑
만5세 아동	220,000원	20,000원 ↑
장애아동	394,000원	별도반 편성시
장애아(3~5세)	414,000원	

2012년 보육료 자격	
영유아	영유아(법정)
	영유아(만0~2세아)
	영유아(만3~4세아)
만5세아	만5세아
	만5세아(법정)
	만5세아(장애아)
	만5세아(다문화)
다문화	다문화보육료
장애아	장애아무상보육료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법정)

2013년 보육료 자격	
영아	영아(만0~2세 법정)
	영아(만0~2세)
	영아다문화(만0~2세)
유아	누리(만3~5세 법정)
	누리(만3~5세)
	누리(만3~5세 다문화)
	누리(만3~5세 장애아)
장애아	장애아
	장애아(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법정)



2 누리과정 확대



- ▶ **(보육료)** 만3~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12년 : 197천원, 177천원, 200천원 → '13년 220천원)
- ▶ **(처우개선비)** 만3~5세반을 맡는 교사 중 만3~5세 독립반 및 혼합반은 월 30만원
만2세~유아 혼합반은 월 20만원을 지원
- ▶ **(운영비)** 일정규모 이상 어린이집(2개반 이상)은 보조교사 채용에 우선 활용 후
잔액은 기타항목 사용 가능
- ▶ **(교사연수)** 누리과정 집합교육(8시간), 원격연수(15차시) 이수 후 자격 부여

3 인건비 지원



- ▶ 보육교직원 인건비 전년기준 3%인상
- ▶ 4대보험 중 국민건강보험료 0.09% 인상('12년 5.8% → '13년 5.89%)
-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만0~2세 담당교사지원) '12년 월 5만원 → '13년 월 12만원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12년 월 5만원 → '13년 월 7만 5천원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 이증지원 방지토록 개선

4 시간연장 서비스 개선



- ▶ 부모의 사전 등록(이용아동 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후 이용

5 취약보육 지원



-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문교사 '12년 월 120만원 → '13년 월 130만원
- ▶ 시간연장어린이집 월급형 시간연장교사 '12년 월 100만원 → '13년 월 120만원
수당형 시간연장교사 '12년 월 30만원 → '13년 월 40만원

6 평가인증 취소보고 등 업무지원



- ▶ 부적절사례 등록 및 지자체 확인요청 등 현행 업무절차를 시스템을 통해 전산 처리 및
취소 사유 발생시 시스템에서 보건복지부 보고 조치

표준보육과정 이해하기 (총론)

윤희경 (계명문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가차원에서 개발된 보육과정이다. 총론은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기본전제, 구성체계와 운영방향 등 보육과정이 지향하는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 표준보육과정의 배경과 성격

★★★★ 생애 초기단계인 영유아기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아는 바다. 최근에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주는 투자 효과로 많은 국가들이 영유아기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이 필요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07년 처음으로 표준보육과정이 개발되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언제, 무엇을 목표로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과 구체적 보육내용이 제시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은 2012년 2차 개정안을 거쳐, 2013년 현재 만3~5세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만0~2세를 위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다.

2. 표준보육과정의 구성체계

★★★★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 영아를 주 대상으로 한다. 영아의 발달과 흥미에 기초하여 일상생활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심신이 건강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영아기는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이러한 발달이 이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다. 이에 따라 영아기의 발달수준,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표준보육과정에 반영하여 개별 영아의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영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언어, 사회, 정서 및 창의성, 인지 등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영아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다. 6개의 영역은 총 18개의 내용범주로 나뉜다. 내용범주는 연령범위에 따라 다시 내용 및 수준별 세부내용으로 구분된다. 만0~1세 보육내용은 1·2·3·4수준, 만2세 보육내용은 1·2수준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 공통의 보육목적을 가지고 수준별로 분화된 표준보육과정 내용은 부채꼴 형태를 띤다. 영아의 월령, 발달, 개인차에 근거하여 보육내용이 서로 연관성과 체계성을 갖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표준보육과정의 세부내용이 연령으로 나뉜 누리과정과 달리 수준별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표준보육과정의 중점방향

***** 어린 영아일수록 성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은 민감하고 반응적인 성인과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이 편안하고 즐거운 놀이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총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점방향을 정리하면,

첫째, 영아에게 어린이집은 생애 첫 기관인 만큼 영아의 개인적 생체리듬에 역점을 둔 보육과정이어야 한다. 영아의 생리적 요구를 맞추는 일상적 양육과 보살핌이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표준보육과정의 세부내용은 연령간, 연령내에서 수준별로 습득해야 하는 기본능력 간에 위계성, 계열성, 연속성을 가지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만2세반의 경우 만0~2세에 모두 다를 필요가 있는 공통내용과 만2세에게만 필요한 내용을 인지한다. 나아가 누리과정과 초등학교와의 연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만0~2세의 영아는 가능한 집단활동보다는 개인별 활동이나 교사와의 1:1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어릴수록 더욱 그렇다. 평가시에도 집단활동보다는 개별적인 상호작용과 교수법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한다.

넷째, 표준보육과정은 양육활동과 놀이활동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만0~1세에는 보다 개별적인 요구와 발달적 과업에, 만2세반은 생활주제 중심의 내용에 역점을 둔다.





★★★★★ 보육교사는 타 직업과 달리 훈육과 교육이라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며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가 직무스트레스에 과다하게 노출된다면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 직무성과,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영유아와 관계형성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지 않고 자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직 환경이 필요하며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개인의 내적 차원에서, 개인-개인간 관계속에서, 조직차원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조직내 스트레스 인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인적 차원에서의 스트레스관리는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할 힘을 키우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가능한한 빨리 풀어버리도록 합니다. 수다를 떨거나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거나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것을 피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료나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며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원장님의 칭찬이나 인정 등의 정서적지지 또한 직무스트레스를 낮추어 줍니다. 보육시설 운영과정에 교사가 참여하거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상호신뢰하면서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또한 보육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보육교직원이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림으로써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함과 동시에 돌보는 영유아에게 그 행복감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박선희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 □ □ 어린이집 A 선생님께서 “우리 어린이집 ○○이가 반 친구들과 말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발음이나 표현방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혀도 좀 짧은 것 같고”라고 하시면서 상담을 요청하셨다. A 선생님께서는 아동과의 어린이집 생활과 교육을 통해 경험적으로 ○○이가 또래친구들과 비교해서 다르다고 판단하셨을 것이다.

장애를 조기발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평가라는 도구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장애아동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A 선생님처럼 비공식적 임상 경험(informal clinical opinion)을 통해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아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비공식적 임상 경험에는 아동의 발달과정과 비교하여 다름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발달과정과의 비교를 통한 장애아동 발견을 위하여 언어문제, 구강문제, 소근육운동, 자조기술 문제를 예견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가. 언어문제 예견 행동

㉠ 발음

- 만 3세가 지났음에도 /ㅂ, ㅃ, ㅌ/ 발음에 이상이 있음
- 만 4세가 지났음에도 /ㄱ, ㄲ/ 발음에 이상이 있음

㉡ 표현언어

- 만 30개월이 지났음에도 50개 단어 이하로 표현함
-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가리키기를 자주 함

㉢ 수용언어

- 만 30개월이 지났음에도 간단한 지시만 이해함

나. 구강문제 예견 행동

㉠ 삼키기

- 먹는 도중 혹은 직후에 기침을 자주 하고 걸걸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 많음
- 입을 계속 벌리고 있고 음료를 너무 많이 흘림

㉡ 씹기

- 12~15개월 이후에도 (내리거나, 거르거나, 으깬) 아기 음식을 계속 먹거나 단단한 음식을 주면 울거나 뱉어서 잘 먹지 않음
- 씹거나 혹은 울거나 웃을 때, 턱과 음식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임

㉔ 숟가락으로 먹기

- 계속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숟가락을 물고 누름
- 혀가 계속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숟가락을 입 밖으로 밀어냄
- 9~12개월이 지난 후에도 숟가락 위에 있는 음식을 윗입술로 깨끗하게 훑지 못함

㉕ 컵으로 마시기

- 컵에서 음료를 마시는 도중 혹은 직후에 기침을 함
- 1세가 지났고 2개월 이상 컵으로 마시기를 연습했음에도 컵에서 여러 모금을 계속적으로 마시기가 어려움

다. 소근육운동 발달지연 예견 행동

㉑ 잡기

- 10~12개월이 지나도 물체를 가리킬 때 검지를 분리하지 못함
- 쓰거나 그릴 때 연필 등의 도구를 영성하게 잡음

㉒ 조작

- 장난감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함
- 3~4세가 되어도 가위 사용을 배우는 데 매우 어려움 보임
(시범이나 도움주기를 해서 가르쳐주어도 따라하지 못함)

라. 자조기술 문제 예견 행동

㉑ 혼자서 먹기

- 식사도구를 잘 사용하지 못함
(미성숙한 잡기 패턴이 너무 오래 나타나거나 양손을 함께 사용하는 등)
- 식사시간에 진득하게 앉아있기 어려움

㉒ 옷입고 벗기

- 적절한 연령임에도 옷입고 벗는 기술이 너무 부족함
- 소근육운동이 부족하여 단추, 지퍼, 똑딱단추 등을 적절한 연령이 지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함

㉓ 배뇨/배변

- 적절한 연령임에도 혼자서 옷을 추스르지 못함
- 배뇨/배변 통제가 매우 느리게 발달함

***** 유아의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장애와 비장애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단지 위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발달주의적 관점에서 전형적 발달양상과 비교하며 차이점을 파악하여 장애를 예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 발생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경험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좀 더 전문가에게 공식적 진단을 의뢰하고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은 반드시 조기중재로 이어져야 한다.



예술과 함께 자라고 싶어요.

정성희 (극단 콩나물 대표, 계명대학교 연극예술과 겸임교수)

★★★★ 장발장, 은춧대....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야기, 레미제라블이 작년 말 영화를 통해서 대중에서 쉽게 다가왔습니다. 때맞추어 대구에는 뮤지컬 공연까지 있었으니, 화면에서 보았던 작품을 무대에서 배우의 라이브 노래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즐겼던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익숙해진 레미제라블을 5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독파하는 독서모임까지 굳게군데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에는 레미제라블의 열풍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영화, 뮤지컬, 책이라는 다양한 매체로 즐기려는 걸까요? 누군가 동일한 영화, 뮤지컬, 책을 여러 번 접했다면 느낄 수 있듯이, 처음 볼 때는 미처 보거나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부분을 다시 볼 때는 확인하고 생각하게 되는 여유와 깊이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단순한 줄거리 파악에 급급하기 보다는 그 작품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린 레미제라블을 다양한 장르로 즐기고 여전히 음악을 들으며 그 감동을 되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남은 채 그 순간 느꼈던 감동과 생각들이 없다면, 그야말로 소일거리의 추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단순한 추억을 넘어선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우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세월의 연륜, 선배의 경험, 인생의 흔적... 살면서 흔하게 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흔한 구절에는 진정 살아있는 의미와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Fact)과 더불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비고츠키(Vygotsky)는 객관적인 사실(Fact)과 주관적인 사고(Thought)가 결합되었을 때만이 경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육현장에서는 경험을 통한 체험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화·연극·뮤지컬 등과 같은 활동들을 단순히 보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나이와 감성에 맞는 생각의 문치와 사고의 모양이 새로운 조합으로 변화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 어찌보면 영유아들에게까지 사고를 유도해야 하는 체험학습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삶의 단순한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한두 살 많은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린 동생을 이해시키고, 더 많은 연륜과 지혜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용서와 관용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남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넓혀가

는 것이 사고를 확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여행을 갑니다. 서로 다른 삶과 생각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음악과 같은 예술을 접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 사고를 심화하는 과정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경험과 가치관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때 발생한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이성과 감성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충돌이 다시금 균형이라는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 주머니와 경험 보따리가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충돌과 공감을 재미나고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마당이 예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과 공감의 사고 활동 없이 단순히 예술 현장을 표면적으로 접하는 것에 머무는 안타까운 체험학습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시작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안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예술 활동 전·후에 예술 주제와 연관된 교육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예술 활동 속에 교육프로그램이 삽입된 형태의 활동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과 더불어 사고하는 체험활동입니다.

★★★★ 인간의 창의성에 있어서 중요한 때가 영유아기입니다. 오감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제도적 사회적 틀 속에 갇히지 않은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아이들의 오감을 다시 회복해서 작업하고자 노력하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의 보는 눈으로 사물을 새롭게 관찰하려고 하며, 그들이 느꼈던 촉각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그들이 느꼈던 감성으로 상상하고자 합니다. 첨단과학 보다 예리한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관찰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사고하며, 성장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아이들은 소란한 소리에 귀를 막고, 아름다운 음률에 반응합니다. 시커멓고 흐트러진 사물을 보면 불안을 느낍니다. 쓴 것을 맛보고는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뱉어냅니다. 따뜻함과 포근함에는 잠이 듭니다. 어느 하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은 가장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고도로 발달된 도구입니다. 이러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예술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자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을 통한 배우이자 성장일 것입니다.

★★★★ 인간에게는 지식을 풍성하고 살아있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감성이 있습니다. 지식만이 존재할 때 혹은 감성만이 존재할 때, 그 지식과 감성은 커져갈수록 위태하고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호기심이라는 감성이 없다면 지식탐구의 열정은 결코 경험될 수 없습니다. 감성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아무런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성과 감성을 예술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만지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예술교육입니다.

“들으면, 잊는다; 보면, 기억한다; 행하면, 이해한다.
(I hear, I forget; I see, I remember; I do, I understand)”

너에겐 나의 진심이 필요했구나!

서윤정 (북구 한일어린이집 보육교사)

‘교감’이란 말, 진심이란 말이 제게 와 닿았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사생활 가운데 저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왔던 아이라고 들었던지라 수월하리라 여겼던 저의 착각도 잠시.. 온몸을 비틀고 바닥에 엎드려 일어나려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서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위로 노력하는 아이의 그 눈빛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래주어도 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고, 따끔하게 혼을 내어도 일어나지 않는 아이를 보며 저는 이미 그 첫날 모든 것을 포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하루, 엎드려 반항적인 아이를 보니 갑자기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왈칵 내려했습니다. 저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말로 다 하지 못하고 저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하루종일 같이 있는 내가 외면하고 있으니 너무 불쌍하다... 이런 일련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품에 꼭 안고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미안해. 엄마랑 더 있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여기 와서 힘들지? 선생님이 미안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선생님이 다 미안해” 저는 한참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품에 안겨서 사과를 받고 그저 가만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사과한 저는 다시 아이를 보며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이제 재미있게 놀면 안될까? 우리 함께 놀자”라고 권유

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론 그 아이는 우리 어린이집에 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제는 눈을 위로 치켜뜨며 노력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루에 꼭 한번 이상은 칭찬 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럽게 보시던 동료 선생님들도 많이 컸다고 격려하시고 원장님도 표정이 밝아졌다며 기특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젠 제게 다가와 먼저 말을 걸고 도움을 요청하고 표현을 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찌릿하고 통한 그 아이와의 교감이, 그리고 진심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저의 진심을 받아준 그 아이의 마음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교육도 좋고,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사상도 좋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도 좋지만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아이와 내가 서로의 마음을 통하는 ‘진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일 뒤론 아이들과 많은 스킨십과 이야기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보려 노력도 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는 ‘진심’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교사가 되려고 애씁니다. 이런 노력들을 이제야 정신 차리고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앞으로 만나는 아이들은 더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을 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생깁니다.

봄나들이가요~



방짜유기박물관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짜유기박물관은 전국 유일의 방짜유기를 테마로 한 전문박물관으로서 자랑스러운 고유 문화유산인 방짜유기와 그 제작기술을 전승 보존하며 후손들에게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2007년 5월 25일 개관하였습니다. • 수려한 풍광으로 유명한 팔공산에 자리 잡은 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2층(대지면적17,880㎡ 건축연면적 3,758㎡)의 규모로 유기문화실, 기증실, 재현실 등 3개의 전시실과 문화사랑방, 영상교육실, 야외공연장, 기획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 램 시 간	4월 1일 ~ 10월 30일 : 10:00 ~ 19:00 11월 1일 ~ 익년 3월 : 10:00 ~ 18:00 * 박물관 휴관일 1. 1. 설날 및 추석당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주 소	대구 동구 도학동 399
예 약	053) 606-6171
사이트	http://artcenter.daegu.go.kr/bangjija/

도시철도 견학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철도이용과 열차 이용 중 비상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차량기지 견학시 열차 내 안전장비 및 소화기 사용실습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열차 이용 질서, 안전유의사항 지도 - 도시철도 안전홍보영상물 시청 - 비상인터폰 사용방법 실습 - 비상시 출입문 개폐방법 실습 - 소화기 사용 체험
관 램 시 간	견학시간 : 10:00 ~ 12: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소요시간 : 40분 ~ 60분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상인동)
예 약	안심차량기지 검수팀 : 053) 640-2632 월배차량기지 지원팀 : 053) 640-2515 문양차량기지 지원팀 : 053) 640-5617
사이트	http://www.dtro.or.kr/

앞산 숲체험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해설 신청 앞산공원의 역사, 문화유산, 산림에 관한 지식 전달, 숲체험 활동 등 질 높은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약접수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는 분은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3년 2월 ~ 11월 - 참여대상 : 누구나 가능(단체, 개인 등) - 접수인원 : 4명이상 ~ 40명이하 (인솔자 있는 경우 이상도 가능) - 신청접수 방법 : 인터넷 또는 전화예약 - 인터넷 접수방법 : 하단 인터넷 접수란 클릭 하여 아래사항 기입
관 램 시 간	- 장소 : 고산골, 큰골, 안지랑골, 달비골 일원 - 시간 : 10:00 / 14:00(조정가능)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574-87 (대명동 산227-1번지)
예 약	전화 예약 방법 : 053) 625-0967 시설담당 정철웅
사이트	http://www.daegu.go.kr/Apsanpark/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안전은 능력과 편리를 중시하는 생산의 공간이 아닌 안전, 건강, 쾌적을 중시하는 생활의 공간으로 전환할 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시민의 안전이 생명의 가치임을 깨닫고 체험을 통해 재난대처 능력과 지식을 얻으며 안전도시 대구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체험은 예약을 원칙으로 함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 체험가능 연령 : 6세 이상 (일부 시설 이용에 제한 있음) ※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직계, 친인척)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관 램 시 간	09:00 ~ 18:00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1155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예 약	- 1회당 20명까지 예약 가능 - 체험은 09:30 ~ 16:00 / 20분 단위 운영 - 체험은 약 2시간 소요 (상세보기) - 체험은 2일 전까지 인터넷 또는 전화(053-980-7777)로 예약 (체험예약하기)
사이트	http://safe119.daegu.go.kr/main.php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근로자건강센터 <전액무료>
 대구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직업병 및 직업관련성질환의 예방을 목표하는 센터입니다.

프로그램제공

건강진단 사후관리 / 근로자 건강상담 및 교육 /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 평가 및 상담 / 근골격계질환 상담 및 운동지도 / 직무스트레스 및 개인 심리 상담 / 근무환경 상담 및 교육

- ◎ **요가태극권교실운영** : 수요일, 금요일 오후 7:30~8:30, 주 2회 실시
- ◎ **운영시간** : 평일 오전10시 ~ 오후9시
- ◎ **전화** : 053 · 285 · 0001~6

교통편 안내

- **시내버스 이용시**
달서 1번 / 좌석 564번 / 156번
- **대구성서산업단지 순환버스**
성서산업단지(2호선) 3번 출구 → 대구비즈니스센터 앞 하차
- **지하철 이용시**
성서산업단지(2호선) 3번 출구 → 성서 119센터 앞(달서1번, 좌석564번) → 대구비즈니스센터 앞 하차
- **자가용 차량 이용시**
죽전네거리에서 성서방향 직진 → 성서네거리(대구은행 성서지점)에서 좌회전 (남쪽) → (주)금복주 공장 통과 → 1km 정도 직진 후 성서공단네거리 우회전 → 대구비즈니스센터 7층



어린이집 신설전문
원복, 가방, 교재교구 / 놀이시설 전문
여름캠프, 이월드 소품



예일교육사

대표 김희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000-76번지
 TEL. (053)745-9576 H.P. 011-539-3464
 FAX. (053)742-5405
 E-mail : ektha15@hanmail.net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내당역) 하차 4번 출구, 반고개역 하차 1번 출구
 버스 이용시 : ① 509, 527, 600, 성서2
 ② 156, 305, 400, 달서2, 성서2
 ③ 156, 305, 323-1, 400-1, 509, 527, 600, 달서2, 성서2

CIC 대구광역시보육정보센터
보육동행 (2013봄호)

발행처 대구광역시 보육정보센터
 발행인 최미희 | 편집인 김현애
 주 소 703-807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0 (내당 2,3동 52-4번지)
 전 화 053)421-2346 | 팩 스 053)428-2349
 E-mail tgcare@hanmail.net http://daegu.childcare.go.kr